

사회

■ 중부 500mm '물폭탄' 호남에 쏟아지면...

시간당 50mm 폭우 땀 광주 완전 침수

하수구 쓰레기 감안하면 시우량 30mm가 배수 한계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광주·전남에서도 폭우로 인한 침수 및 붕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10년간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광주도 더 이상 재해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폭우가 내릴 경우 광주시가 별다른 침수피해 없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시간당 강수량(시우량) 50mm다. 시우량이 50mm 이내라면 서구와 남구, 광산구에 설치된 4개 배수펌프나 하수도를 활용해 영상산을 비롯한 지역내 하천 등으로 빗물을 뿔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계산으로, 각종 쓰레기나 밀집한 건물

등 대도시의 장애물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시우량이 30mm만 넘어도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폭우에서 경기도 의정부에 쏟아진 시간당 101.5mm의 비가 광주에 퍼부은 다면 일시적이거나 도시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이 경우 광주에서는 주택이나 농경지 침수피해는 물론 급경사지가 무너져 내림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동구에서는 소태동과 내남동의 주택·농경지가 침수될 가능성이 크며, 소태동 대명아파트 뒷편과 용산동 일광맨션 뒷편, 산수동 중앙중 뒷편, 서석동 조대기숙사 뒷편의 급경사지들이 무너져 내려 입주민이나 아파트가 매몰될 우려가 높다. 급남지하상가나

총장상가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서구에서는 급호동 마복공원 뒷편, 풍암동 동부아파트 뒷편, 양동 그린아파트 뒷편, 주월동 신천그린아파트 뒷편 경사지가 흩어 무너져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침수에 대비해 표준 메뉴얼과 재해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에서는 진월동 호반아파트 뒷편, 주월동 장미아파트와 신천그린아파트 뒷편이 위험한 급경사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촌동 일대 농경지는 침수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구의 급경사지로는 동림동 삼호아파트와 유일아파트 뒤 옹벽, 운암동 기상청 및 나산아파트 뒷편, 두암동 무등아파트 뒷편, 유동동 성진아파트 뒷편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석곡동 신천마을과 월출동 해산마을은 침수위험이 큰 곳으로 분류되어 있다.

광산구는 산막동의 고흥지구, 연산동 연산지구 그리고 송정지하차도가 큰 비에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시우량이 30mm만 넘어면 침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침수에 대비해 표준 메뉴얼과 재해침수지도'를 제작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국도·지방도에 설치된 하수관개 대부분은 시간당 62mm(50년 빈도 기준)의 강우 강도(단위 시간당 강수량)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남악산도시나 목포시 등 대도시 빈도 통상 50년 빈도 기준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설계했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다만, 마을 진입도로나 골목길 등에 설치된 하수관개는 시간당 20년 빈도의 강수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전남지역은 국내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집중호우가 가끔씩 내렸다. 1998년 7월 31일 순천에는 1시간만에 14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 기록이다. 당시 이틀간 지리산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91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냈다.

1981년 9월2일에는 태풍 예그니스의 영향으로 장흥에 547.4mm의 비가 내려 역시 1일 최대 강수량 기록을 세웠다.

최근에는 지난 2009년 7월 7일 신안에서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08mm(여·54·순천시)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빈도의 강수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해 사망·부상 땀

1천만원 지원금

큰 비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면 정부로부터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7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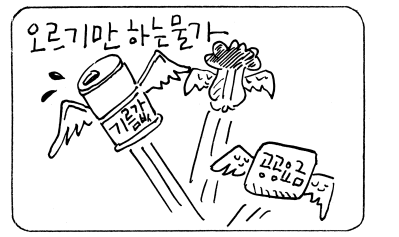
가족들이 당장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국비(70%)와 지방비(30%)에서 긴급 구호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당한 수준의 장애가 생길 정도로 부상한 경우에는 세대주는 500만원, 세대원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피 명령을 어겼거나 불어난 강물을 구경하려다 실족한 경우 등 본인 과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주택이 전파되면 복구비용 900만원과 용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반파 시에는 450만원이 나오며 주택 침수 시에는 세대당 수습비용 100만원이 제공된다.

자연재난이 끝나고 10일 이내에 본인이나 가족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지원된다. /연남뉴스

나원침 (8367) 김종두



순천대 총장 후보

송영무 교수 당선



순천대학교 제7대 총장 선거에서 송영무(57·사진) 수학교육과 교수가 후보자(1순위)에 당선됐다.

27일 열린 순천대 총장선거에는 총 4명의 교수가 출마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2차 투표를 벌였다. 그 결과 송영무 교수가 165.9표로 1위를 차지했다. 신형근 교수는 135.9표를 얻어 2순위 후보자가 됐다.

순천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이들을 1, 2 순위 총장 후보자로 교과부에 임용 추천할 예정이다. 1순위 후보자인 송영무 교수는 전북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장과 조선대학교법원 이사 등을 지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수상인명구조원 체력훈련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조난객 구조에 나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수상 인명구조 요원들이 27일 오후 광주시 동구 선교동 선교저수지에서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편 회삿돈 5억 빼내 교회 헌금

목사부부는 가전제품·옷 구입 써

순천경찰은 27일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 남편 회삿돈 5억원을 몰래 빼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자)로 모 금융기관 직원 김모(여·54·순천시)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5억원을 목사인 남편과 짜고 헌금이 아닌 가전제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정모(여·45·순천시)씨를 구속하고 그의 남편 윤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교회 헌금을 하기위해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기관에서 예치된 남편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5000만원을 몰래 인출하는 등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김씨가 건넨 5억원을 헌금이 아닌 전자제품과 의류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목사 윤씨는 부인이 5억원을 받아 사적 용도로 쓴 사실을 알고있어 공범으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임건우 전 보해 회장 내일 소환

광주지검, 피의자 신분으로

보해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 전 회장을 곧 소환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임 전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임 전 회장은 29일 오전 검찰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은행 자금이 보해양조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회사의 회계 자료와 주식거래 내용 등을 분석해 왔다. 검찰은 수백억원대 불법대출과 배임행위로 보해

저축은행과 보해양조 모두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두고 임 전 회장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목포시 보해양조 본사와 경기도 용인의 지점, 서울 강남구 임 전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해저축은행 자본은 보해양조 40%, 본인 27.6% 등 임 전 회장 측이 75%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지난달 1일 대표이사 회장에서 사임했으며 보해양조는 압수수색 1주일 뒤인 같은 달 23일 임건우·현우 대표 체제에서 임현우 단독 대표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나이스 오류' 광주·전남 고교생들

1998명 성적 석차·222명 내신 정정

'나이스(NEIS·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로 광주·전남 고교생 1998명(63개교)의 성적 석차와 222명(36개교)의 내신 등급이 바뀌었다.

2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는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8곳 등 오류가 발생한 30개교의 성적 재처리를 완료했다.

고교 석차가 변경된 곳은 28개교로 1087명, 학생부 내신 등급이 바뀐 고교생은 14개교 1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고교 35곳 911명의 학생의 석차가, 22개교 109명은 학생부 내신 등급이 변경됐다. 시·도교육청은 28일 성적 재처리

결과를 해당 학생·학부모에 통보할 방침이다. /윤영기자 perfoot@

교회 앞에 신생아 버려

광주 한 교회 앞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생아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4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 한 교회 앞에 놓여 있는 신생아를 교회 목사(4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남아아이는 흰 수건 등으로 둘러싸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수십억 공탁금 사고 공무원에

구상금 1억8천만원 지급 판결

광주지법 민사6부

공탁 관련 업무를 잘못 처리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법원 사무관이 여대의 구상금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6부(이우철 부장판사)는 27일 국가가 이 법원 사무관이 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국가에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탁공무원에게 비록 형식적인 심사권만 있다 해도 심사를 통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공탁금 회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이씨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에도 선부른 판단으로 공탁금 회수 청구를 인가한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탁 업무가 공무원 손해배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손해액 가운데 은행이 보관 중인 수표 33억여원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상금 액수를 1억 8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2004년 11월 법원 인감과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해 공탁금 회수를 청구한 사람들에게 공탁금 42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인가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대기업 취업' 미끼 수억 뜯은 부부

쌍다발

○...광주지방경찰청은 27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인 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 취업을 준비하던 이모(37)씨로부터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년간 6명으로부터 총 2억5000만원을 받아왔던 혐의.

○...김씨는 인사비를 받아 갹긴 다음 호텔 카파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을 동원해 마치 대기업 인사담당자가 취업 대상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연극까지 하는가하면, 모 대기업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기속사비까지 받아 챙겼다고.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recruitment information for public servants and various exam preparation courses. Includes text like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and '한빛고시학원'.